

이건희 학위 수여 항의 시위자에 대한 징계 계획 당장 철회하라!

삼성 이건희 회장이 고려대학교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으러 인촌기념관을 방문했다. 삼성 이건희는 노태우정권 때부터 수십 차례 정경유착을 통해 전투기사업, 자동차사업, 건설 사업에 각종이권을 챙겨온 부정비리의 장본인이다.

또한 80년대부터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삼성노동자들을 폭행, 감금, 협박, 해고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탄압해 왔다. 최근에는 삼성SDI 전 현직 노동자 12명을 휴대전화 불법복제를 통해 위치추적까지 했다.

고려대학교는 이러한 반인륜적 노동탄압 장본인에게 명예철학박사학위를 주려 한 것이다. 이 날 고려대 학생 150여명은 이건희의 노동탄압과 불법증여한 자가 400억 투자했다는 이유로 학위를 받는 것에 분노해 항의시위를 벌였다.

노동탄압 박사

항의시위 때문에 박사학위수여식은 학교 고위관계자 3명과 조출히 할 수밖에 없었고 이건희는 인촌기념관 뒷문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건희 항의시위는 사장들과 '사회 지도층' 에는 세상이 무너진 듯 한 일이었지만 이들에게 억압받았던 다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짜릿한 승리감과 희열을 느끼게 해주었다.

항의 시위로 이건희의 이미지가 실추되자, 고려대 총장은 앞장서서 이건희에게 "회장님"을 연발하며 '충심으로' '깊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부총장이 하 9명의 처장단은 사퇴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다수사람들에게 과잉 대응으로 비춰졌고 KBS 시나투나잇은 이를 "고



노동 탄압, 불법 증여 비판하면 징계감?

려대학교야말로 반지성적"이라고 비꼬았다.

학교측의 사과와 처장단 총사퇴가 너무 무리한 처사라는 의견이 많아지자 삼성 이건희는 자신의 '부덕의 소치' 를 인정하고 사퇴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고려대 당국은 학생들을 징계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시위가 일어난 이후 고대 학생처장은 "참가자의 신상을 파악해 학생들 50명을 징계할 것" 이라고 밝혔고 고려대 총장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이라며 탄압을 예고했다.

실제로 학교당국은 5월 11일 처장단 회의에서 학생징계를 논의한다고 한다. 시위학생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

학생들이 벌인 이건희 항의시위는 베일속에 가려져 있던 삼성의 본질을 밝혀내고 대학의 기업 지배에 반대하는 아주 정당한 시위였다. 재벌총수의 노동탄압과 불법증여 사실을 비판했다고 학생들을 징계하는 것이 고려대학교 당국의 교육철학인가? 자유로운 논

쟁과 민주적 토론이 보장되어야 할 대학에서 비판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이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된다.

'징계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이건희 항의시위자 징계반대 대책위에
함께 합시다

<http://cafe.daum.net/ku52dcw>

여러 학내외 단체와 개인들이 징계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 4-5면 참조) 이러한 지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위를 지지하고 시위참가자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시는 개인과 단체는 지지글을 보내주시시오. 공개적 지지표명도 환영합니다.

e-mail: 52backup@hanmail.net



평화 시위조차 가로막은 ‘평화 고대’의 위선

‘총학 없는 평화고대’(이하 ‘평화고대’)는 정대 후문 1인 시위와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지난 5월 2일 있었던 이견회 명예박사학위수여 반대시위에 대해 ‘폭력성’을 의도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2일 학위수여 반대시위에서 폭력을 휘두른 것은 학생이 아니라 학교 당국과 삼성이었다.

학생들은 폭력을 쓸 계획이 없었으며, 실제로도 행사하지 않았다.(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이 유인물의 관련 글을 참조하라.)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총학 없는 평화고대’는 계속 우리더러 폭력을 썼다고 왜곡한다.

심지어 이들은 5월 5일 100주년 기념식에서 “다함께”가 폭력을 쓸 것이라는 식의 거짓 선동을 해대고 다녔다.(고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글 번호 239780 - ‘평화고대’의 이승준은 우리가 이 점에 대해 항의하자 자신의 글을 삭제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글의 전문을 저

장해 두었다.)

‘평화고대’를 주도하는 이승준씨는 “폭력적인 방법은 절대 안 된다. 조용히 피켓시위만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면 될 일”(한겨레 5월 4일치)라며 “비폭력적인 의사표현은 자유”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그의 위선은 단 하루만에 백일하에 드러났다.

‘평화고대’는 폭력은커녕 마스크 쓰고 침묵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학교직원들과 협력해 앞장서서 가로막았다.

‘평화 고대’의 이승준은 학생처로부터 전화가 와서 시위대를 제지하기 위해 중도관 앞으로 갔다고 자신의 입으로 얘기했다.

결국 ‘평화고대’를 주도하고 있는 학생들의 관심은 애초부터 ‘폭력성’ 여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폭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이견회에 항의한 행동 자체를 비난하려고 했던 것이다.

평화 시위조차 가로막은 ‘평화고대’는 “폭력 시위” 운운하며 왜곡을 일삼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총학없는 평화고대’ 리더 이승준의 말 바꾸기

“삼성을 좋아하지도 않고 400억 원을 기부한 대가로 명예박사 학위를 준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 5월 4일자 인터넷 <한겨레>와의 인터뷰

“[이견회가 품 좀 내겠다는 게 뭐가 그리 아니꼬워서... 철학 박사 학위면 어쩔고 경영학 박사면 어때냐?”

- 5월 3일, 고대 자유게시판에 쓴 글(글 제목, “어제 주동자를 죄다 퇴학 처분 시켜라” 글 번호 236807)

“폭력적인 방법은 절대 안 된다. 조용히 피켓시위만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면 될 일”

-5월 4일자 인터넷 <한겨레>와의 인터뷰 (그러나 그는 바로 다음날 징계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을

든 침묵시위조차 가로막았다.)

“우리는 학교측과 연관된 단체가 아니다. 다만 당일[5월 5일] 아침에 학생처에서 연락이 와서 미리 모인 사람들이 시위를 막으러 중앙도서관 앞으로 간 거다.”

- 5월 6일, 다함께 회원 서범진에게 물어 온 오락가락한 변명

이승준은 다함께 고대 모임 대표 서범진과 학생회관에서 우연히 만나 잠깐 논쟁을 했다. 이 때 서범진이 236807 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진정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캐묻자, 그는 논쟁이 끝나자마자 인터넷에서 자신의 글을 삭제했다. 그러나 그가 삭제한 글들은 이미 여러 사람들이 읽었고, 우리는 그 글을 고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다시 올릴 것이다.

‘총학없는 평화고대’ 서명 운동 -

총학 탄핵 수순 밟기

‘총학없는 평화고대’는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총학생회와 다함께의 사과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리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 총학생회 탄핵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마치 총학생회가 사과조차 하지 않아서,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양 시능한다. 그러나 ‘총학없는 평화고대’를 주도하는 소수 사람들과 ‘고대 제일주의’와 같은 우익 학생 조직들은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을 총학생회 탄핵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 했다.

‘평화고대’의 리더인 이승준은 항의 시위 바로 다음날, 고대 자유게시판에 올린 자신의 글에서 “학생회 놈들부터 이 학교를 떠나라.”하고 솔직하고도 분명히 자신의 속내를 밝혔다.

“고대 제일주의”라는 우파 단체는 “반총학 운동을 결의하였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써 다음 주부터 반총학 서명운동에 들어갈 작정”이라고 한다.

이들의 의도는 ‘총학없는 평화고대’라는 단체 이름에서부터 물씬 풍긴다. 그러나 이들은 최근에 탄핵 의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일자, 은근슬쩍 ‘총학없는’이라는 수식어는 뺐다.

이들이 한사코 이견회 학위 수여 항의 시위를 “폭력 시위”라고 왜곡했던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른 글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들의 진정한 관심사는 ‘폭력적이나 평화적이나’하는 문제가 아니다. ‘총학없는 평화고대’는 심지어 평화적인 침묵 시위도 학교측과 함께 앞장서서 가로막은 자들이다.

‘총학없는 평화고대’를 주도



총학생회 탄핵을 노린 ‘평화고대’의 서명 운동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 총학 탄핵 부추기는 <조선일보>

하는 사람들이 이견회 학위 수여에 항의한 것 자체를 “폭력”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이 기회에 총학생회를 탄핵할 명분을 얻고 싶기 때문이다.

심지어 총학생회가 이 시위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를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들이 이유를 불분하고 총학생회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총학생회로 대표되는 진보적 학생들의 활동 자체를 봉쇄하고 싶기 때문이다. 대학 내에서 전정에 반대하고, 기업의 횡포에 반대하고, 등록금 인상에 맞서 싸워왔던 진보적 학생들을 위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마녀사냥같은 상황이다.

이들의 서명 운동은 사실상 학교측의 징계 계획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리고 총학생회가 정당한 교육투쟁을 진행하며 중

양광장에서 2천 여명의 학우들과 싸울 때조차 총학생회를 비난했던 학내 우파 학생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서명이다.

한나라당의 노무현에 대한 탄핵 시도를 열렬히 응원했던 <조선일보>가 5월 6일자 기사에서

“고대 내에서 반총학 운동 바람이 불고 있다.”며 재재를 부르고 있다. 총학생회 탄핵을 노린 ‘총학없는 평화고대’의 서명 운동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 거꾸로 시위 학생들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는 서명에 함께 하자.

대자보 훼손 행위 중단하라

학교에는 많은 대자보가 붙어 있으나 유독 이견회 항의 행동을 지지하는 대자보들만이 집중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의견의 동의 여부를 떠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대자보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표현의 자유’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대자보의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그 옆에 반박대자보를 붙이면 된다. 앞으로 이런 유치한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평화고대’도 대자보 훼손 행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대자보 훼손 행위를 목격한 분들은 신고해 주십시오. 휴대폰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로 훼손 장면을 찍어서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nokdootg@hanmail.net)

이건희 박사학위 수여 항의 시위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

강수돌(고려대 교수)

“대학과 자본이 이런 식으로 ‘산학 유착’을 이룰 때, 우리는 진리와 정의와 자유를 추구하는 참된 대학의 모습을 잃기 쉽다. 이것은 이미 미국과 유럽의 많은 대학들이 ‘군산학 복합체’ 속에서 본연의 진리 탐구와 사회의 등불 역할을 하기보다는 자본에 포섭당하고 포스스로도 자본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서도 증명된다. … 약 반세기 전 4·18 시위가 ‘민주’ 고대로의 용비 계기였다면, 이번 5·2 시위가 참된 ‘세계’ 고대로의 용비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열망한다.”



인으로서, 그리고 사소하게는 고려대에서 석사를 마친 졸업생의 한 사람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저 ‘전투적 기업인’에 맞선 고대 총학생회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사회학)



“한국의 최고 명문 사학마저 대통령보다 삼성 총수를 더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한쪽의 팽파레가 울리기 위해 다른 편에서는 지옥과야만의 풍경이 연출되어야 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의 우울한 풍경이다. … 우리는 과연 삼성에게 나라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하나?”

김성환(삼성일반노조 구속노동자)



“천민자본 족벌경영 총수 이 건희가 명예철학박사 학위 수여 식에서 학생들에 의해 개방신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통쾌하였습니다. 울산구치소로 가는 나를 학생들이 천민자본을 규탄하는 환송식을 열어준 것 같아서 말합니다. … 천민자본을 응징, 규탄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나에게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땅의 양심은 죽을 수 없음을 확

인하였습니다.”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 해고자

“5월 2일 고대에서 이 건희가 명예철학박사학위 수여식이 있을 때, 우리 신세계이마트 여성 조합원들은 또다시 회사로부터 2차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답니. 우리 조합원들은 용어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이마트가 감금, 미행을 하였다거나 이마트가 무노조경영이념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마트가 인권 유린,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 1회당 5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를 이마트 수지, 수원, 분당점 100미터 이내에서 알려거나 인터넷, 피시통신, 정기 부정기간행물, 인터뷰 등을 통해서 알려도 안되고 제3자에게 이를 시키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도 안됩니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무노조경영이란 칼날이 명예철학박사의 훈장이 될 수 있다는 이시대의 희극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끝이 닿지 않는 깊은 늪같은 절망이고 슬픔입니다. 그러나 이번 고대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성균관대 학생 공동성명서

“삼성이 재단으로 있는 성균관대학교의 상황 역시 지성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다. 학생들의 자치연론들은 여러 차례 탄압받은 역사가 있으며, 심지어 교수와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감시찰한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계속되는 학교당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은 더욱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전면적인 상대평가 실시, 상품제로 인한 졸업조건 강화, 학사관리 엄정화 등으로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은 더욱 파편화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시위는 삼성기업의 진정한 본질을 알리고, 대학이 기업의 돈에 의해 변질되는 것에 항의한 정당한 행동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대학은…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을 교육하는 곳이어야 한다. …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의 잘못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의견이 다른 사람의 주장을 존중하고 인내하는 정신을 가르쳐야 한다. 이제 학생들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고 대학의 본자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

대학노조 고려대지부/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고려대 비정규직교수협의회/ 시설관리노조 고려대시설지부

“고려대 총학생회여, 땀땀하라! … 총학생회를 필두로 한 학생들의 이번 행동에 지지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이번 사건이 그간 한국 사회에 몇 차례 있어왔던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에 맞서 고대 총학생회와 같은 자리에서 단호하고 당당하게 맞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삼성노동자감시통제와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경기지역공동대책위원회

“이 회장이 자기 기업 내 젊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는 왜 이해하지 못하는 지, ‘그들의 인권을 처절히 짓밟는 기업 경영 원칙’에 대해서는 왜 반성하지 못하는 지 궁금할 따름이다. 우리는 관련 학생들에 대한 피해가 절대 없어야 하며 한편으로 이번 기회가 삼성의 무노조 경영원칙의 반인권성을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학교 당국과 정부, 언론의 과잉 대처가 결국 삼성 무노조 정책을 지원하는 꼴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고대 수학교육과 학생회

“언론들은 정작 이 건희 회장이 저지르는 노

동자에 대한 엄청난 폭력들과 불법적인 부의 상속 등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는다. 이런 자들이 그 날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폭력 운 하는 것은 우선이다. … 돈을 받고 학위를 판 학교본부야말로 정작 잘못된 쪽이다.”

고대 지리교육과 학생회장 김종희

“이 건희에 대한 존경은 자본주의적 실적에 대한 ‘찬양’ 뿐이다. … 노조를 탄압하고 독재정권부터 이어지는 정경유착의 깊은 뿌리는 그가 ‘인품’으로도 도저히 존경받을 수 없음을 나타낸다. … 여기에 대해 폭로하고 항의하는 학생들의 항의는 우리가 ‘무엇’을 존경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올바른 행동이었다.”

고대 노어노문과/반학생회

[항의 시위에 대한 입장] 학내의 정치적 주장의 자유와 연결되는 문제이다. 정치적 주장에 대한 탄압은 이후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노문과/반 학생회는 5월 2일 시위를 지지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시위자 탄압 방어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옳은 일을 지지하고 함께 나아가려는 노문인들, 나아가서는 많은 고대인들이 이러한 지지와 행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삼성일반노조 게시판에서: ID 삼성응징

“모처럼 어제는 개운한 하루였습니다. 노조 탄압의 대표주자가 학생들에게 개방신당한 것을 보니 정말로 후련하더군요.”

‘다함께’에 지지메일을 보내준 고려대 학생

“일련의 고려대 사건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의 신념과 행동에 지지를 보냅니다. 보수 언론과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당신들을 진심으로 지지하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주시고 이후에도 신념을 잃지 마시고, 비난의 목소리에도 굴하지 마시고, 뜻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고영(유뉴스, 고려대 경영학 석사과정)

“고려대는 무슨 생각으로 [박사학위]를 480억 원에, 친인척 관계에, 100주년 학교 이미지 개선을 위해 반대급부를 치르고 급부로 넘겨주었는가? … [고려대학교]는 어찌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것과 자본의 권력자 앞에서 보이는 행동이 그렇게도 다를 수 있던 말인가? … [학생들을 지지했던 어느 교수님 한 분 학생들의 목소리에 맞서 자신의 행동의 정당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모여든 고대 교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고려대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닌 처세술을 가르치는 곳임을 느끼게 했다.”

김형규(문과대 99학번)

“학자로서 갖추어야 할 학문적 양심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재벌 총수에 대한 굽신거림이 있을 뿐이다. … 시위 학생들을 ‘징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이들[보직교수들]에게서 인간적 연민마저 느낀다. … 폭력이라고 해서 다 같은 폭력이 아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말콤 X가 말했듯이,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폭력은 폭력(violence)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성(intelligence)이라고 부른다.’”

이 외에도 진중권씨, 김종업 한신대 교수,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사회당, 공무원 노조 서울본부, 코오롱건설 노조,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등 많은 분들이 지지성명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박노자



“이 건희 씨의 말도 안 되는 ‘박사학위 수여’에 반대하는 여러분들의 시위의 쾌거를 저는 열심히 지켜봤습니다. … 사실 저의 일종의 모교이기도 한 고대교수 분들께서

하셨어야 할 일을, 학생들이 대신 한 노릇입니다. … 여러분들의 불의를 가만히 보지 못한 마음과 행동을 저는 당연히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 그리고 징계 결정이 된다면 이는 Z-net 등에서 알려 세계대학 사회의 문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학생들이 행동은) 공익과 장기적 사회 발전을 위한 의로운 행동 그 자체입니다.”

손석춘

“삼성의 이 건희 회장에게 사돈인 김병관 이사장은 철학박사의 ‘명예’를 주며 ‘영광’이라고 말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 아닌가. … 언론

광범한 반기업 정서가 이견회를 물러서게 하다

삼성 이견회 회장의 철학박사 학위 수여 항의행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이견회 회장은 “이번 일은 내 ‘부덕의 소치’”라며 “이 문제가 고려대나 학생, 삼성 모두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꼬리를 내렸다.

이견회가 물러나게 된 것은 사회 저변에 도도하게 흐르는 광범한 반기업 정서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영자지 <코리아타임스>는 “광범한 반기업 정서”가 삼성측 성명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보수언론들은 ‘반기업 정서가 기업할 의지를 꺾는다’며 반기업 정서에 대한 적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반기업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럴 만한 이유가 있다.

빈곤층 700만 시대에 부자들은 오히려 재산이 불었다. 삼성이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불법증여를 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비밀인데도 경찰은 이견회를 조사한 적이 한번도 없다.

이번 이견회 학위 수여식 논란 또

한 사람들의 반기업 정서를 자극했다. 철학에 아무런 학문적 기여를 한 바가 없는 사람이 400억원 이상의 돈을 기부했다고 철학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견회 회장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참으로 대단하신 회장님’ 이견회가 항의를 받자 보수언론,

계, 학교당국 심지어는 청와대와 장관까지 나서 시위학생들을 비난하는 데 앞장섰다. 이견회의 자존심을 구겼다는 이유로 총장이 직접 나서서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며 사과문을 전달하고, 부총장이야 보직교수 전원이 사퇴하고, 심지어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 50여명의 신원을 파악해 징계하겠다는 조치까지 발표하자 많은 사람들이 ‘삼성에 대한 과잉충성’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반기업 정서가 더욱 확대되는 것이 두려워 이견회는 물러선 것이다. 우리의 시위는 삼성과 대기업들로부터 온갖 착위와 억압에 시달리던 평범한 사람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했다.

삼성에 대한 반감에는 이유가 있다

■삼성과 역대 정권의 유착관계

-삼성은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에 자금을 제공했다. 그래서 4·19 때 많은 사람들은 부정 축재자 이병철의 처단을 요구했다.

-삼성은 박정희 정권과 철저히 유착해 중화학공업, 기계, 화학, 전자, 호텔 등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독재 정권과의 유착은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계속됐다. 전두환 정권은 고속도로 건설, 차세대 전투기, 반도체, 울곡사업 등의 이권을 삼성에 줬다. 이병철은 그런 특혜에 보답해 모두 2백20억 원을 전두환 정권에게 헌납했다.

-삼성은 아홉 차례에 걸쳐 모두 2백50억 원을 노태우 정권에 헌납했다. 노태우 정권도 차세대 전투기, 상용차 사업, 건설 사업 등 각종 이권을 삼성에 안겨 줬다.

-김영삼 정부는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 답례로, 삼성은 1997년 대선 때 여당에 10억 원의 대선자금을 건넸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는 여야당에게 385억 원을 대선자금으로 제공했다.

■삼성의 기상천외한 편법 상속

-이병철은 1987년 죽기 전 치밀한 공작을 꾸며 당시 자산총액 11조 원의 그룹을 단돈 1백50억 원의 세금만 물고 이견회에게 넘겼다.

-이병철이 죽자 이견회는 자산 11조 원, 매출 17조 원의 초대형 기업 소유주가 됐지만, 그가 실제로 신고한 상속액은 2백70억 원에 불과했다.

-이견회는 이재용에게 60억 8

천만 원을 증여했다. 이재용은 증여세로 16억 원을 내고 나머지 44억 8천만 원으로 삼성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을 각각 23억 원과 19억 원 어치를 구입했다. 이견회는 두 회사를 즉시 상장했다. 덕분에 이 44억 원이 6백억 원으로 둔갑하면서 이재용은 순식간에 거금을 쥐게 됐다.

■삼성의 노동탄압

-삼성SDI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있자 삼성은 노조 설립을 주도하던 노동자들을 보름 가까이 납치·감금·협박과 회유를 하며 “노조 포기 각서”를 강요했다. 그 당시 한 노동자는 행방불명이 된 적도 있다.

-삼성은 삼성SDI 노동자와 해고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휴대폰

을 불법으로 복제해 위치를 감시했다.

-이마트는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동자의 어린 딸을 미행하고 접근하기까지 했다. 이마트 노동자들은 “이마트가 무노조 경영 이념을 갖고 있다”는 누구나 아는 사실을 얘기해도 5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견회가 누리는 특권

-이견회가 8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이태원에 짓고 있는 새 집은 18홀 골프장이 있는 빌 게이츠 집보다 비싸다.

-프랑스 여행 때는 평범한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힘든 알프스의 고급 스키장을 아예 전세를 냈다. 독일 관광 때는 국내외 삼성 직원 50명이 2개월동안이나 ‘황제휴가’를 준비했다.

-삼성전자 임원과 직원의 임금 격차는 무려 125배나 된다.

기업의 대학 투자 — 약인가 독인가?

주류 언론들은 4백18억 원을 기부한 사람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며 이견회를 지지한 고대 학생들을 비난하고 있다. “고대의 입장에선 이 회장은 학교에 막대한 기부를 한 고마운 사람이고, 이날은 고대의 손님이었다.”(《조선일보》5월 4일치.)

그러나 삼성의 돈은 역대 군사 정권들과 유착하고, 편법으로 탈세하고, 노조 만들려는 노동자들에게 온갖 탄압을 자행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견회에 고마워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게다가 기업이 대학에 투자하는 것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윤을 더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라면 노동자들의 인권유린도 서슴지 않는 기업이 ‘공짜로’ 투자할 리는 만무하다.

대학에 많은 돈을 들여 건물을 지어 주는 기업들은 산학연계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이번 ‘100주년 기념관’ 뿐 아니라 ‘LG-포스코 경영관’을 지은 삼성·LG·포스코는 모두 고려대와 산학협동을 강화하고 있다.

공짜

산학협동은 기업들이 기술개발 비용을 절감하는 한 방법이다. 가령 포스코는 서울대·고려대 등 7개 대학, 15명의 교수와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80명 등을 자신들의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참가시키고 있다.

기업과 대학의 연계는 대학 교육이 기업의 요구에 더욱 깊숙이 종속되는 과정을 낳았다. 이때문에 “자유로운 학문 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목적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특히 ‘이공계’에서는 이 점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분야는 연구 주제조차 기업의 요구에 철저히 종

속되고 있다.

《NO LOGO》라는 책으로 유명한 반자본주의 활동가인 나 오미 클라인은 기업이 대학과 ‘계약을 맺을 때 기업에 불리한 연구결과나 학문성고를 발표하지 않기로 한다는 점도 꼭 포함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의 연구는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유해성을 밝혀냈으나 그 대학을 후원하는 기업에 의해 결과가 공식 발표되지 못했다.

기업의 대학지배가 강화될수록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인재가 되기 위해 학생들은 더 많은 경쟁에 시달려야 한다. 기초 학문은 소외당하고 대학의 학사과정은 학생들의 지적 욕구와 자아실현이 아닌, ‘취직 줄 세우기’를 위한 경쟁에 종속되고 있다.

상대평가제, 학사관리엄정화, 토익 졸업제한제 등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불합리하며 학우들 사이의 경쟁을 부추기는지 학우들 대다수는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해마다 여러 대학에서 상대평가제 반대, 토익 졸업제한제 반대 등의 경쟁 완화 조치가 등록금 투쟁의 주된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기업의 대학지배가 심화되면 인문·사회과학 분야도 기업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받을 것이다. 기업과 연계를 맺으며 ‘인문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어윤대 총장의 말은 허울뿐이다. 순수학문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견회에, 순수학문 교수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철학박사 학위를 준 사건 자체가 소위 ‘인문교육 강화’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기업의 기부금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반드시 쓰이는 것도 아니다.

일례로 이번 100주년 기념관 4-5층에 생긴 ‘열람실’은 애초부터 계획된 것이 결코 아니다.



애초에 백주년 기념관 설계도에 학생들을 위한 시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었다. 2004년 초 학생 대표들이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관련 투쟁을 통해 학교측에 강하게 열람실 확충을 요구했기 때문에 백주년 기념관에 이런 시설들이 추가될 수 있었다.

줄 세우기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학투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삼성·LG·포스코 등의 기업이 들어오는 동안에도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어윤대 총장은 한편에선 기업들의 투자가 학생들에게 이로울 것처럼 홍보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수업료가 너무 낮다”며 “등록금 책정에 대한 완전 자율화”를 요구한다.

삼성이 재단으로 있는 성균관대학교의 사례는 기업의 대학투자가 학생들에게는 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삼성이 투자하는 성균관대에

서는 사회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돼 있다. 재단이 학교의 모든 교수들의 성향을 수집하고, 학생들의 시위참여와 사회 비판적인 선전물에 대해 사찰을 벌인다. 심지어 학내 잔디밭에서 집회를 할 수 없도록 입구에 언덕을 만들고 나무를 심으라고 지시하는 등 학내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은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다.

또한 ‘젊은 사람의 열정’으로 통 크게 세금을 떼어먹은 이재용에 대해 불법증여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배포된 지 4시간도 안된 수천 부의 교지를 모조리 회수한 일은 가히 학내 언론 탄압의 ‘사고와 인식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다고 할 만하다.

기업의 대학 투자에 기대하기보다는, OECD 평균(국내총생산의 1.0퍼센트)에 훨씬 못 미치는 국내총생산 0.4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정부의 대학 지원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요구하고, 대학들과 학생들의 상호경쟁을 격화시키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폭력' 행사는 없었다

이건희 회장 반대 시위에 대해 보수언론들과 학교당국, '총학 없는 평화 고대' 등은 시위가 폭력으로 점철된 것처럼 묘사하지만, 시위대는 폭력을 의도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다만, 이건희 같은 노동탄압의 장본인이 아무런 항의없이 수여식장으로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입장 지지 시도가 있었을 뿐이다. 입장지지 시도를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제 시위에서도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과 행사저지를 구분해, 후자를 '비폭력 저항'이라고 부른다.

비폭력 저항

애초에 학교측은 일부 교수들과 교직원들을 동원해 행사장 앞에 일종의 '바리케이트'를 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위압적 분위기 조성은 계속 이어졌다. 학교측은 운동부 학생 30여명을 불러 학생들의 시위 대열 앞에 대치시키기도 했다.

이런 학교측의 대응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애초에 학교측은 이 시위의 정당성이나 이유 따위는 관심도 없었다. 학생들의 정치적 주장에 귀 기울이기는 커녕, 애초에 집회를 하는 자체를 막으려 했던 것이다.

애초에 시위 참가자들은 이건희 회장이 밟고 지나갈 레드카펫 주위에서 피켓 라인을 만들고 그의 입장을 지지하려 했다.

그런데 시위대의 예상과 달리, 이건희 회장은 시위대를 아예 무시하고 옆길로 급히 행사장으로 들어가려 했다. 예상 밖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좀 더 분명한 항의 의사를 전달해야겠다는 몇몇 개인들이 앞으로 달려나갔



구호와 팻말로 항의한 것이 폭력인가?

다.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항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봐 더 가까이 쫓아가 말과 팻말로 항의했다. 여기서 교직원들과 이건희 회장의 사설 경호원, 그리고 학생들 간의 충돌이 일어났고 이것이 학생들의 일방적 '폭력'으로 둔갑했다.

이 와중에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학생들이었다. 학우들 중 2~3명은 귀걸이가 뜯어져 피가 났고, 손이 찢어지기도 했으며 얼굴을 구타당하기도 했다. 사태를 진정시킨 것도 학우들 자신이었다. 이건희 회장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간 후 대열 지도를 하던 참가자들은 혼란을 정리하고 연좌시위에 들어가자고 호소했다. 이 호소 덕에 더 이상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이건희 회장의 학위수여를 반대하고 5월 2일 시위가 '폭력'으로 점철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저지시도를 해 충돌을 일으킨 것 자체가 문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또, 몇몇 개인이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문제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의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레드카펫

시위대는 이건희 회장이 레드카펫을 밟고 그냥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효과적 항의의 방식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저지시도를 포함해 항의의 의사표시를 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도 도로점거 등의 방식을 허용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만 시위의 정당성을 판단한다면, '정당한 시위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호순 미션 살해 항의 촛불시위,

김선일씨 추모시위, 탄핵반대 시위, 419 의거, 87년 6월 항쟁 등 많은 시위들이 요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사람들과 이것을 막는 경찰력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포함했다.

뿐만 아니라 이건희 회장이 아무리 '높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를 존경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그에게 예의를 지킬 필요는 없다.

결국, 시위의 정당성 여부는 시위의 정치적 내용에서 평가를 내는 것이다.

또한 진정 폭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큰 문제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학내에 전경을 충돌시키겠다고 협박하는 학교나 노동자들을 일본까지 납치해 노조 사퇴서를 강요하는 이건희 회장이야말로 진정 사회의 거대한 '폭력' 사용자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런 진정한 폭력에 반대한 5월 2일 이건희 회장 학위 수여 반대 시위는 매우 정당하다.